

해외산림을 활용한 ESG 가치 창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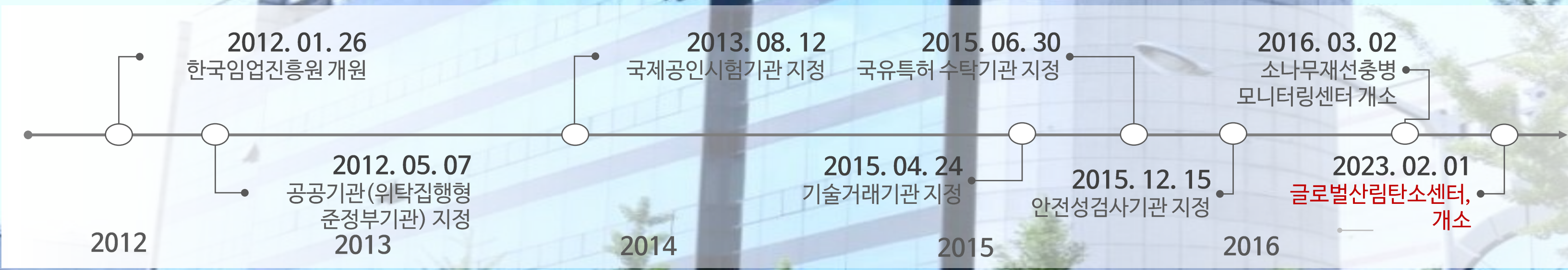
제11회 에너지·탄소포럼, 2024.4.25

한국임업진흥원 최수원 선임



한국임업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품질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및 산림정보인프라 구축, **해외산림사업 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담당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01 해외산림에 대한 조명(照明)

02 해외산림사업 현황 및 전망

03 해외산림사업과 ESG 경영 성과 창출 방안

04 정책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참여 방안

01 해외산림에 대한 조명 (照明)

뉴데일리 경제

"2조 생수시장 잡아라"... 용진식품도 도전장

6월 더조은워터 지분 43억원에 인수
오는 2025까지 남원공장에 220억 투자 계획
생수시장 규모 2조3000억원 전망

기사입력 2023-08-18 10:17:13 | 최종수정 2023-08-18 11:01:11 | 김보라 기자 | bora6693@hanmail.net



출처 : 뉴데일리 경제(2023.8.18 기사)

국내 생수 시장규모 : 2010년 4,000억원



2023년 기준 2조 3000억원

환경부 등록 생수 제조사 60개 브랜드

전 세계 판매제품 300여개가 시장에서 경쟁 중

산림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 *1인당 약 428만원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임업직불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임업직불제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도입경과

'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 제정
 “임업·산림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 발의('20.7) →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0.1)

산림청

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임업직불제

왜 필요한가요? ①

221조원

- 토사유출방지 23.5조원
- 산림경관제공 28.4조원
- 온실가스 흡수·저장 75.6조원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 **약 221조원(2018년)의 공익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 혜택 제공)

산림청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기능” → 산림을 가꾸어 탄소흡수량을 사고 파는 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2013,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2015, 규제적)



산업 환경ESG

숲이 '돈'되는 시대...산림 투자 잇따른다

남정민 기자 ☆

입력 2022.06.20 17:49 수정 2022.06.21 00:44 지면 A16

가가



나무 심고 탄소 크레딧 확보
SK, 서울 남산의 40배 숲 조성
MS·JP모간, 산림관리업체 인수

SK그룹이 1970년대부터 가꿔온 충북 충주 인등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상용이던 인등산(사진)은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크레딧으로 바꿔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등산을 통해 ESG 경영 강화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SK그룹의 설명이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2022.6.20 기사)



출처 : 춘천MBC(2023.5.2 보도)

산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

“ AI,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은 산림관리 패러다임 대전환 견인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25년 농림위성 발사로 한반도 전역의 산림 변화를 3일 주기로 관측 가능
- 산림재난 상시 감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등으로 정보 제공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 첨단 ICT 기술로 산림재난위험 예측·감시 정확도 제고
- 범부처 공간정보 고도화, AI 기반 딥러닝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판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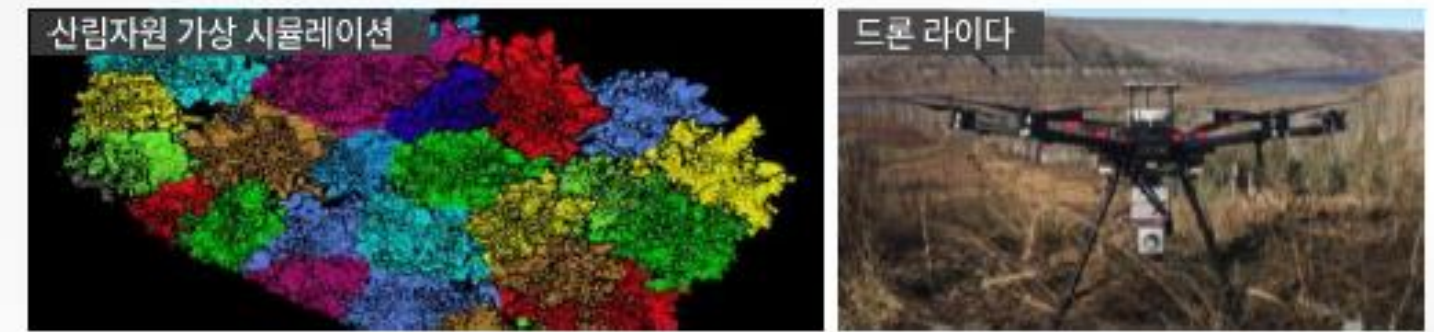
상황별 예측 및 분석

- 3차원 산림공간데이터에 AI를 접목한 '디지털트윈 산림플랫폼' 구축(~'27)
- 산림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산림관리

-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해 공간정보기반의 산림자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IPCC Tier3 & LULUCF Approach 3)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자료의 시·공간정보(GIS)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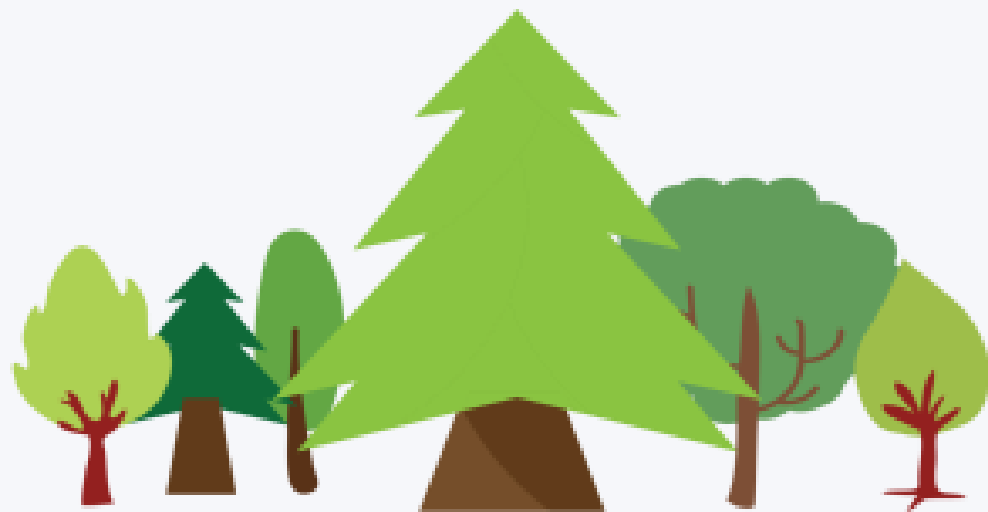
해외산림사업의 특징점

규모의 경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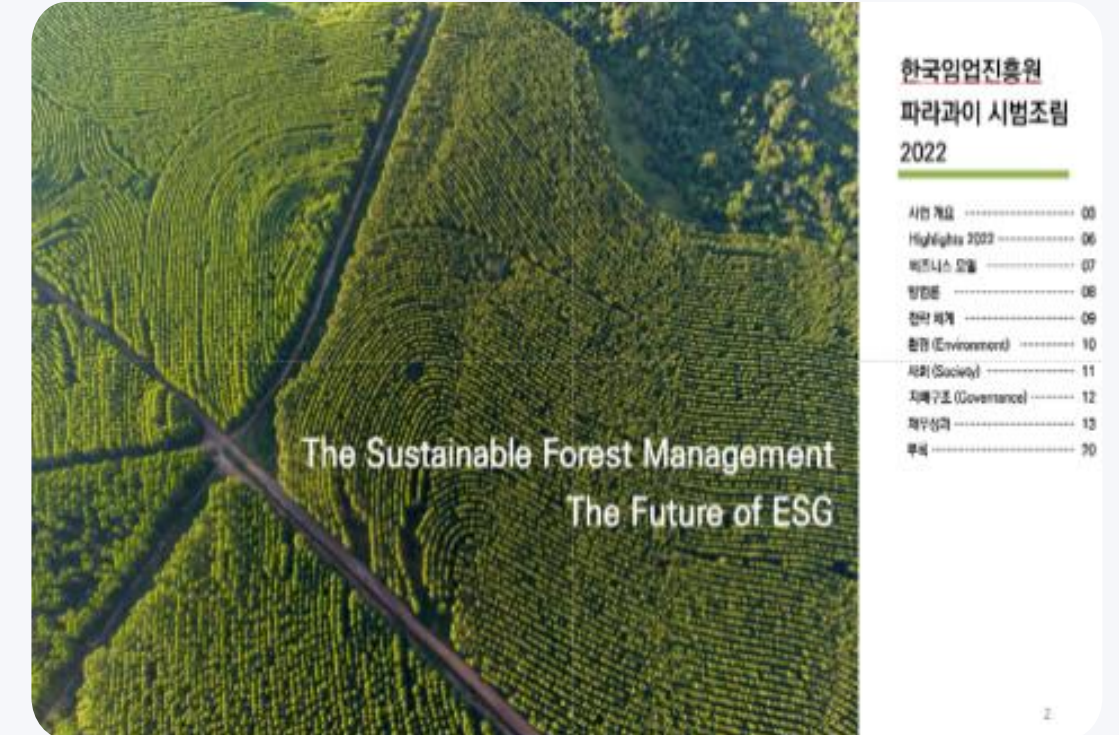
높은 산림 생산량 확보,

투자관점의 사업 경쟁력,

사회적 가치 창출 잠재력 등



인도네시아 시범사업 백서



파라과이 조림 가이드



해외산림사업지 전경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02 해외산림사업 현황 및 전망

해외산림사업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림, 유통, 판매** 등을 포함하는 부대사업을 의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약칭: 해외농업산림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044-201-2040, 20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5. 1. 20.>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 3의2.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

두 번째,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

세 번째, 외국인에게 개발 자금을 융자, 투자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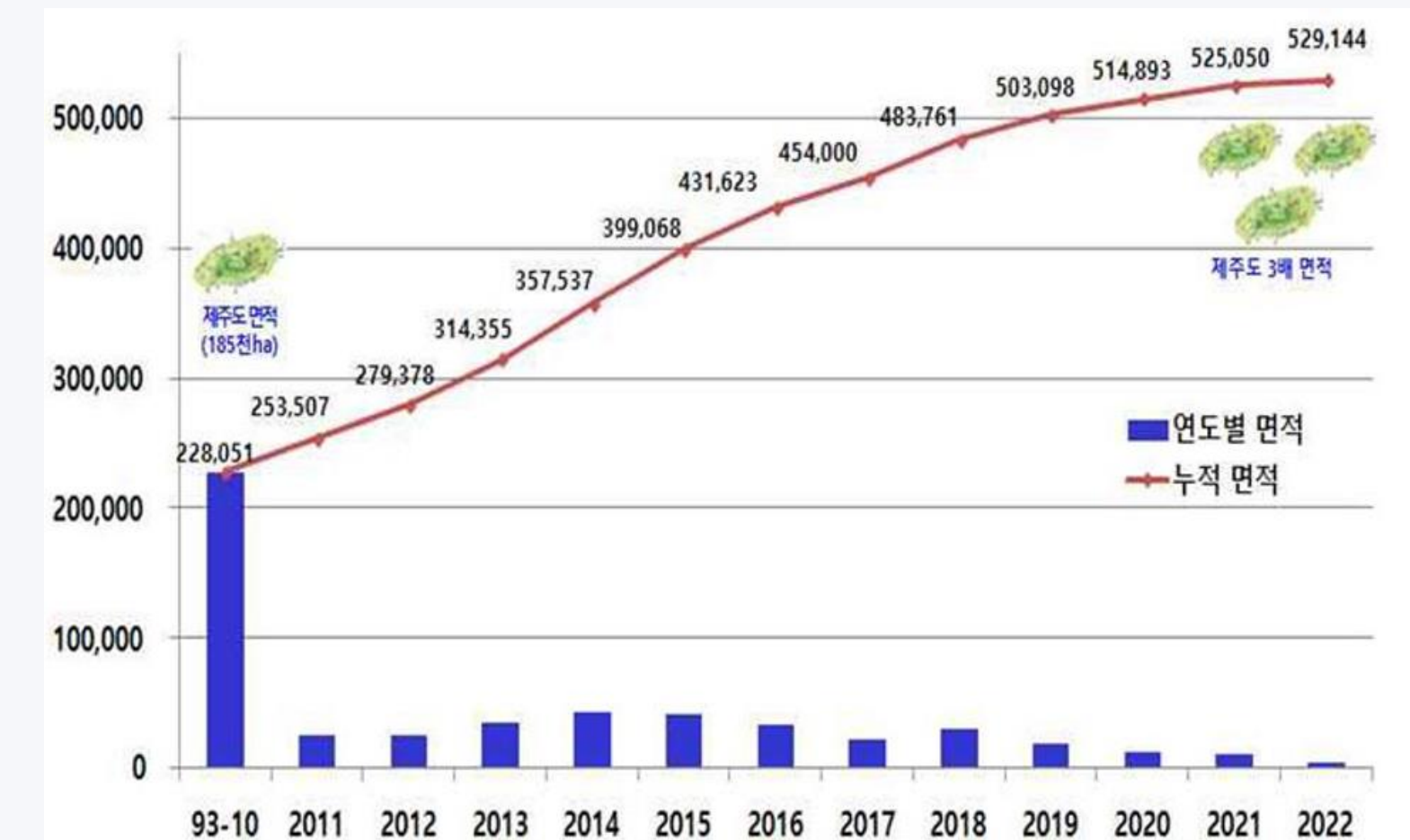
지원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해외산림사업 현황

- 42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진출
- 총 529천ha 면적 조성 *제주도 면적은 185천 ha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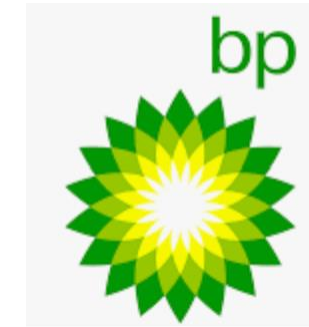
연도별 해외조림 추이



글로벌기업의 산림투자 현황

- 미국 대형투자은행 JP모건의 산림관리업체 **캠벨글로벌 인수**로 산림투자
 - 캠벨글로벌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에 총 687천ha 산림관리기관
- 영국 최대 정유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탄소상쇄기관 **파이나이트 카본 인수**
 - 파이나이트 카본은 2009년 북미에서 설립된 산림탄소상쇄 전문기관
-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세일즈포스닷컴의 **내추럴캐비털거래소(NCX) 투자**
 - NCX는 숲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산림 소유주를 찾아 연결해주는 사업
- 아마존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2조원대 규모의 **기후서약펀드 조성**
 - 산림녹화나 이산화탄소 포집 등 통해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제로(0) 목표

J.P.Morgan



Micros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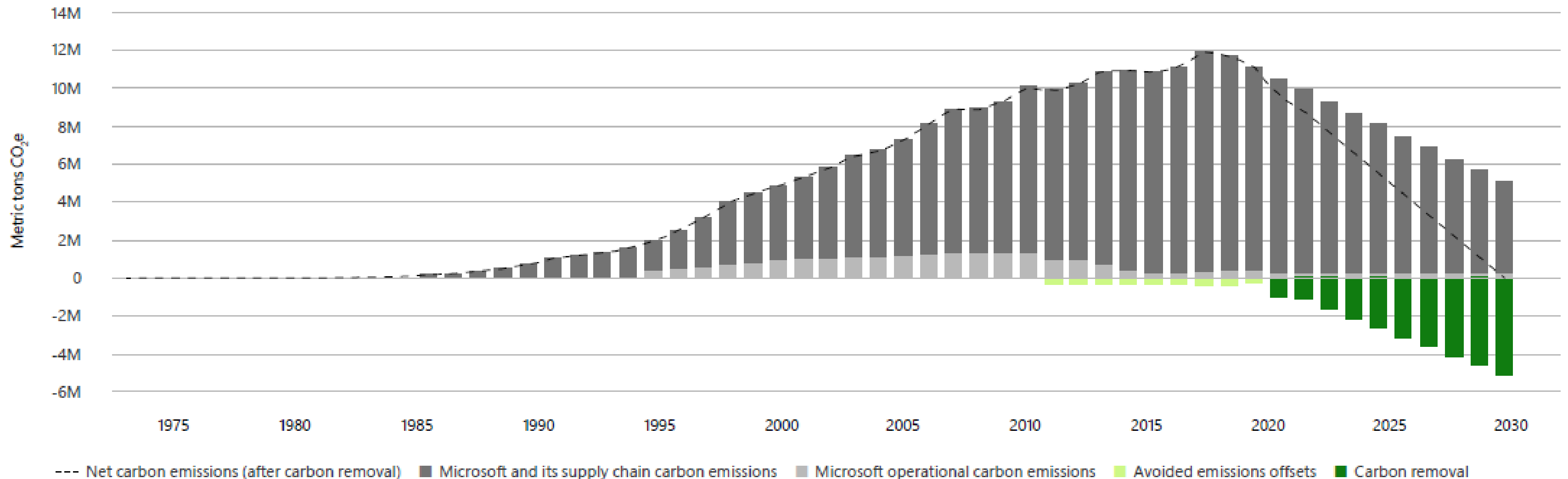
amazon

* 아마존(Amazon)과 글로벌 옵티미즘(Global Optimism) 후속으로 버라이즌(Verizon)도 참여

마이크로소프트사 탄소정책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회사 설립된 이래 배출한 탄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탄소네거티브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신규조림·재조림**, 토양탄소격리, 바이오에너지, 대기 중 탄소포집이 있음



기업(기관)이 산림에 투자(해야)하는 이유

- ① **사회적, 시대적 요구** : 투자기관, 소비자, 주주 등 기후위기 대응 및 ESG 경영에 대한 요구 증대
- ② **탄소중립 달성 수단** : 사내 탄소중립 계획 시 보조적 수단으로 상쇄배출권, 탄소크레딧 활용
- ③ **재무적 수익 기회** : 환경적 가치 VS 동산, 부동산 가치
 -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산림이 가진 환경적 가치가 상승하거나 산업발전 및 토지 개발이 진행될수록 산림이 가진 부가가치 활용 기회

국민연금, 투자다변화 위해 산림지(Timberland) 투자



팀버랜드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철학에도 부합하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성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매력도가 높아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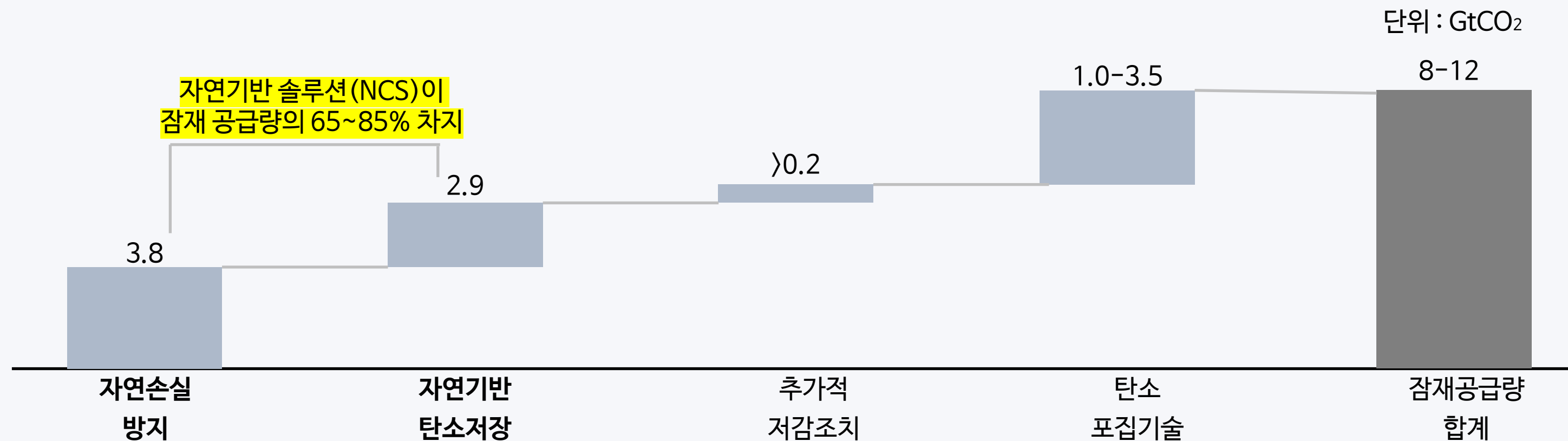
NPS 국민연금공단

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https://www.npsonair.kr/fund_news/1928)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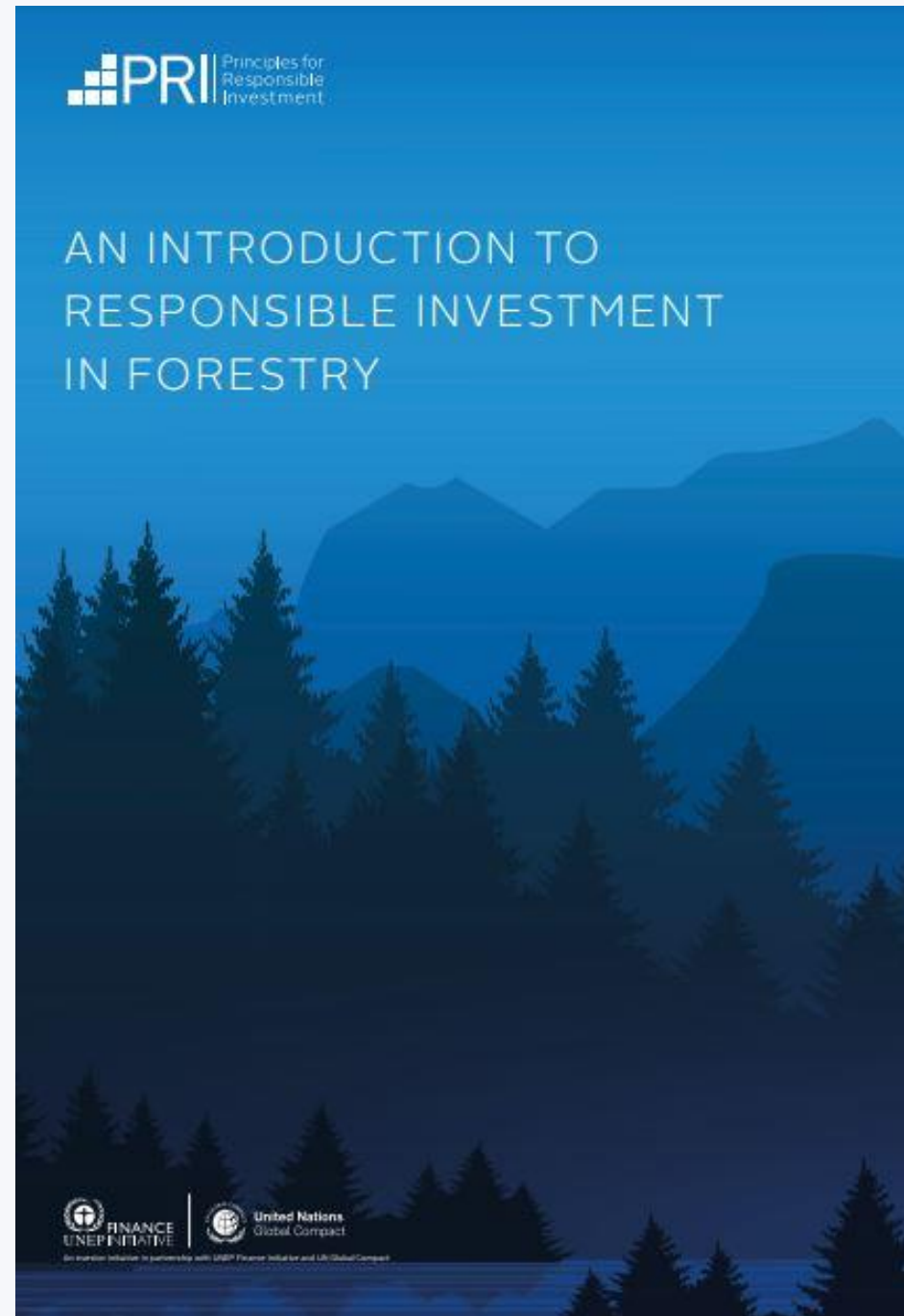
2030년 자발적 탄소크레딧 **연간 공급량은 8~12GtCO₂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대부분이 **자연기반 솔루션(NCS, Nature-Based Solutions)에 해당**

* NBS는 "Nature-Based Solutions"의 약자로 이는 자연 기반의 해결책을 사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
NBS는 **산림 보전, 생태계 복원, 도시 녹지 공간 증진** 등의 방법을 통해 실현



03 해외산림사업과 ESG 경영성과 창출 방안

UN 책임투자 원칙(PRI)에서 권장하는 산림투자를 통한 ESG 가치 창출을 발표



FORESTRY

ESG factors in forestry investing

15 May 2019

Forestry investors must consider a range of ESG issues for both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s. Such issues may present material risks to forestry operations and the success of an investment if managed improperly.

Conversely, robust ESG risk management can be a significant source of value creation. Notable ESG issues include: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ter use and availability, and the broader impact on watersheds. Pollution (such as through pesticides and the impact on soil quality). Positive and negative climate impact. Planting and harvesting techniques, and resource management.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nd rights (acquisitions, tenancy and use of land).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other key stakeholders. Labour standards, including health and safety. Supply chain custody, particularly regarding illegal log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ti-bribery and corruption standards. Quality of management plans and systems. Grievance mechanisms available to key stakeholders.

출처: UN PRI.ORG

E(환경)

산림경관 및 수문 복구,
생물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

S(사회)

지역주민 소득 증진,
숲가꾸기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 등

G(거버넌스)

대상지 확보 관련 법률 준수,
이해관계자 참여 결정구조,
투명한 사업 경영 등

산림투자를 잘 하면 ESG 가치 창출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실적이 발생

UN 책임투자 원칙(PRI)에서 발표한 산림투자자 UN 지속가능 개발목표 연계사항

Achieving the SDGs through forestry investing

13 May 2019



In addition to climate impact, the strategies highlighted in the previous section also have an explicit focus on the broader tene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They emphasise that the desir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investments cannot be achieved without relevant stakeholder buy-in, and that there should not be a trade-off between seeking environmental benefits and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and better social and governance performance.

Forestry investing, through such strategies, among others, can therefore also potentially play a part in achieving the 17 SDGs, many of which can be t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forestry. For example:

SDG 3: 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DG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3: Climate action

산림사업을 통한 UN SDGs 주요 기여사항



③ 건강과 복지



⑥ 깨끗한 물과 위생



⑦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⑬ 기후변화 대응

* UN 책임투자 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인정 기준 명시

ESG 평가기관 등 산림 관련 반영사항



한국ESG기준원 모범기준 개정(21.8)

REDD+ 등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활동 등을 신규 추가

Category	KPI	평가 내용 및 기준
혁신활동	친환경 혁신역량	친환경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성과(특허, 기술인증 등)를 내고 있는가?
	환경성 개선성과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생산공정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공정관리	생산공정 내 투입물 절감 및 배출물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실제 성과가 있는가?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검토)
	온실가스	기후변화 리스트 대응 차원에서 CDP(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있는가? TCFD 기준에 맞추어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인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실제 성과가 있는가?
공급망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협력업체의 선정과 운영, 협력업체의 제품 관리에 있어서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 종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써스틴베스트 ESG 평가 방법론(23.7)

탄소정보공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 명시(출처 : 써스틴베스트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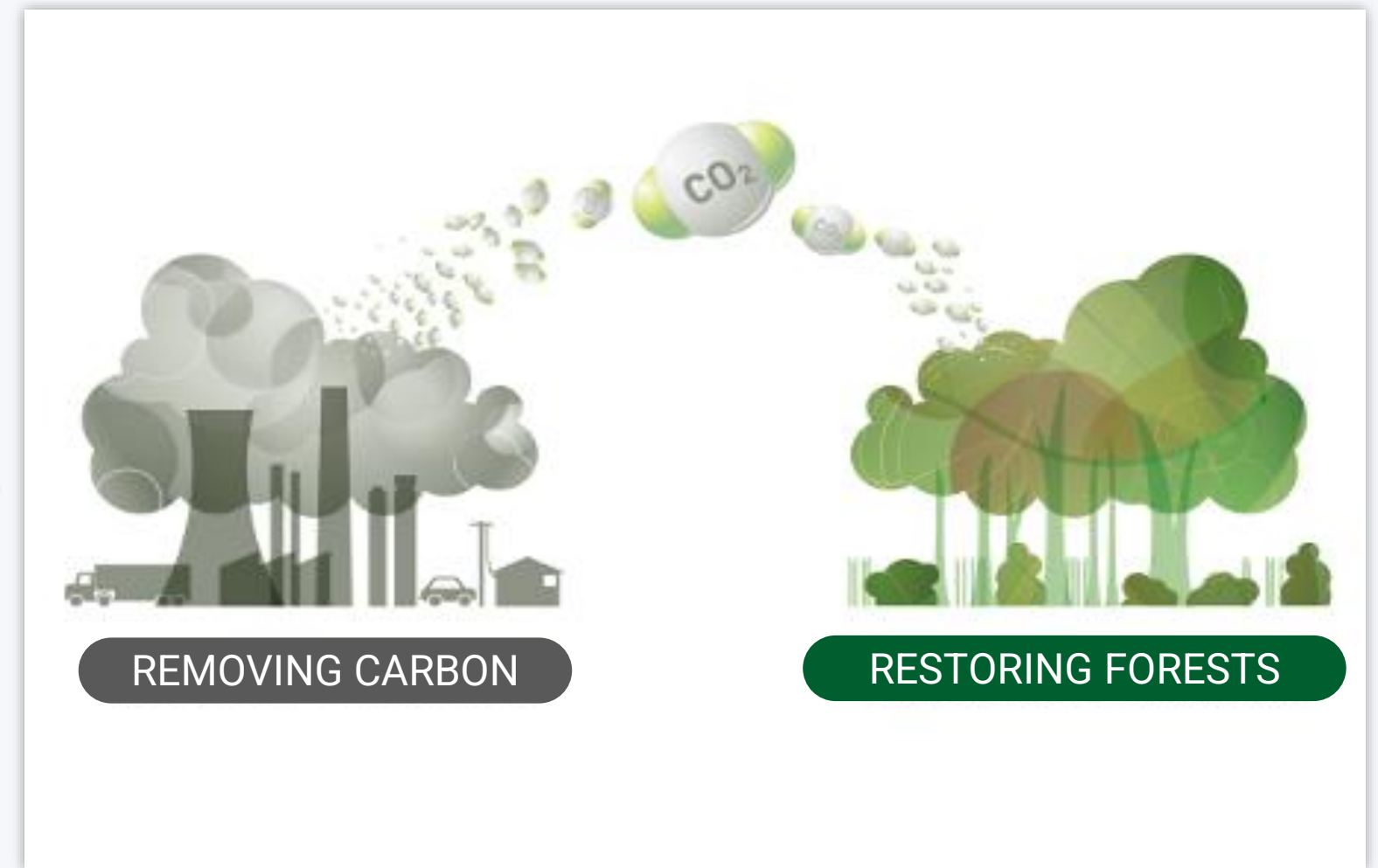
4-2. 환경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기후변화 대응-추가1	환경	기후변화 대응																								
항목 명칭	산림탄소흡수량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함께화 방지 활동(REDD+ 등) 등 산림을 통해 탄소 흡수량을 획득하는 수준을 확인 																										
성과 점검	조직이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해 흡수하는 탄소 양을 측정 [데이터 원천] 산림탄소흡수량 공시 여부, 연도별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현황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 [데이터 기간] 최근 5개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 범위] 국내, 해외 지점 포함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기준> <table border="1"> <tr><td>(a)</td><td>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td><td>tC</td></tr> <tr><td>(b)</td><td>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d><td>tC</td></tr> <tr><td>(c)</td><td>총 탄소흡수량 (c=a+b)</td><td>tC</td></tr> <tr><td>(d)</td><td>베이스라인 흡수량</td><td>tC</td></tr> <tr><td>(e)</td><td>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td><td>tCO₂</td></tr> <tr><td>(f)</td><td>누출량</td><td>tCO₂</td></tr> <tr><td>(g)</td><td>t 기간</td><td>년</td></tr> <tr><td>(h)</td><td>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td><td>tCO₂</td></tr> </table>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 ₂	(f)	누출량	tCO ₂	(g)	t 기간	년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 ₂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 ₂																									
(f)	누출량	tCO ₂																									
(g)	t 기간	년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 ₂																									
	1단계	과거 5년간 산림탄소흡수량 정보 없음																									
	2단계	과거 5년간 산림탄소흡수량 공시																									
	3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 상쇄량 하락 추세																									
	4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 상쇄량 상승 추세																									
	5단계	과거 5년간 자사 배출량 대비 산림탄소흡수 상쇄량 매년 상승 추세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K-ESG 가이드라인(21.12)

산림탄소흡수량을 환경지표상 분류

해외산림사업을 통한 ESG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목재 확보 사업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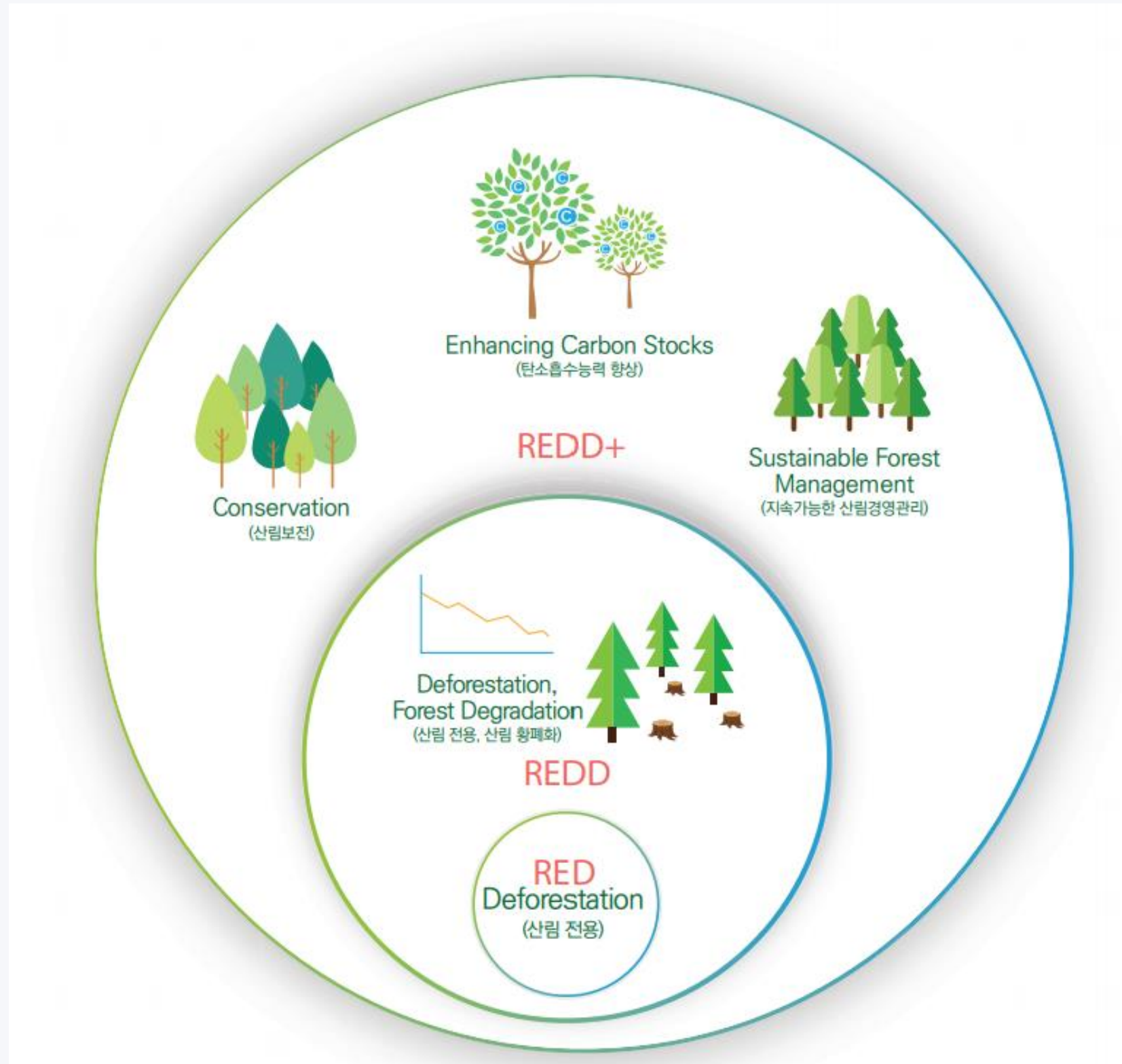
- 기존의 해외산림사업은 목재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조림 위주의 사업**
- 목재생산 경제성을 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에 대한 활동 부족

- 최근의 해외산림사업은 탄소중립과 ESG경영 성과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변화
-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의 **국제탄소감축사업** 관심 증대

REDD+ 사업 필요성 급부상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뿐 아니라 산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능케 하며, 산림탄소축적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출처 : 2023년 쉽게 설명하는 REDD+ 설명본(산림청, 2022)

01. 해외산림탄소축적증진 **왜**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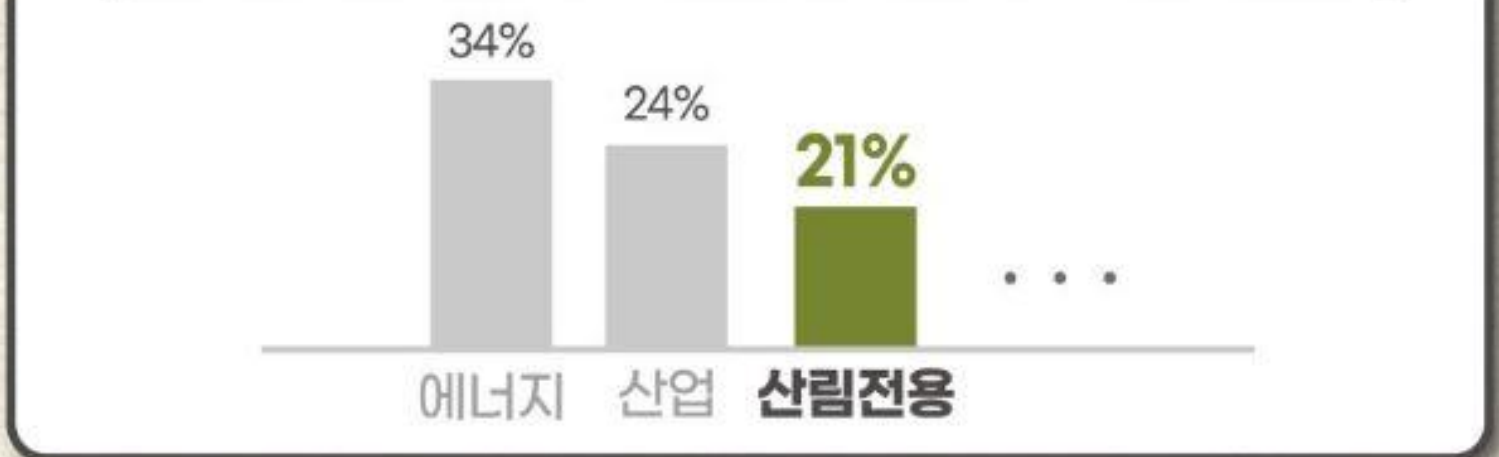
Q **해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이란?**

A. “해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합니다.



01. 해외산림탄소축적증진 **왜** 하나요?

○ 2019년 기준 분야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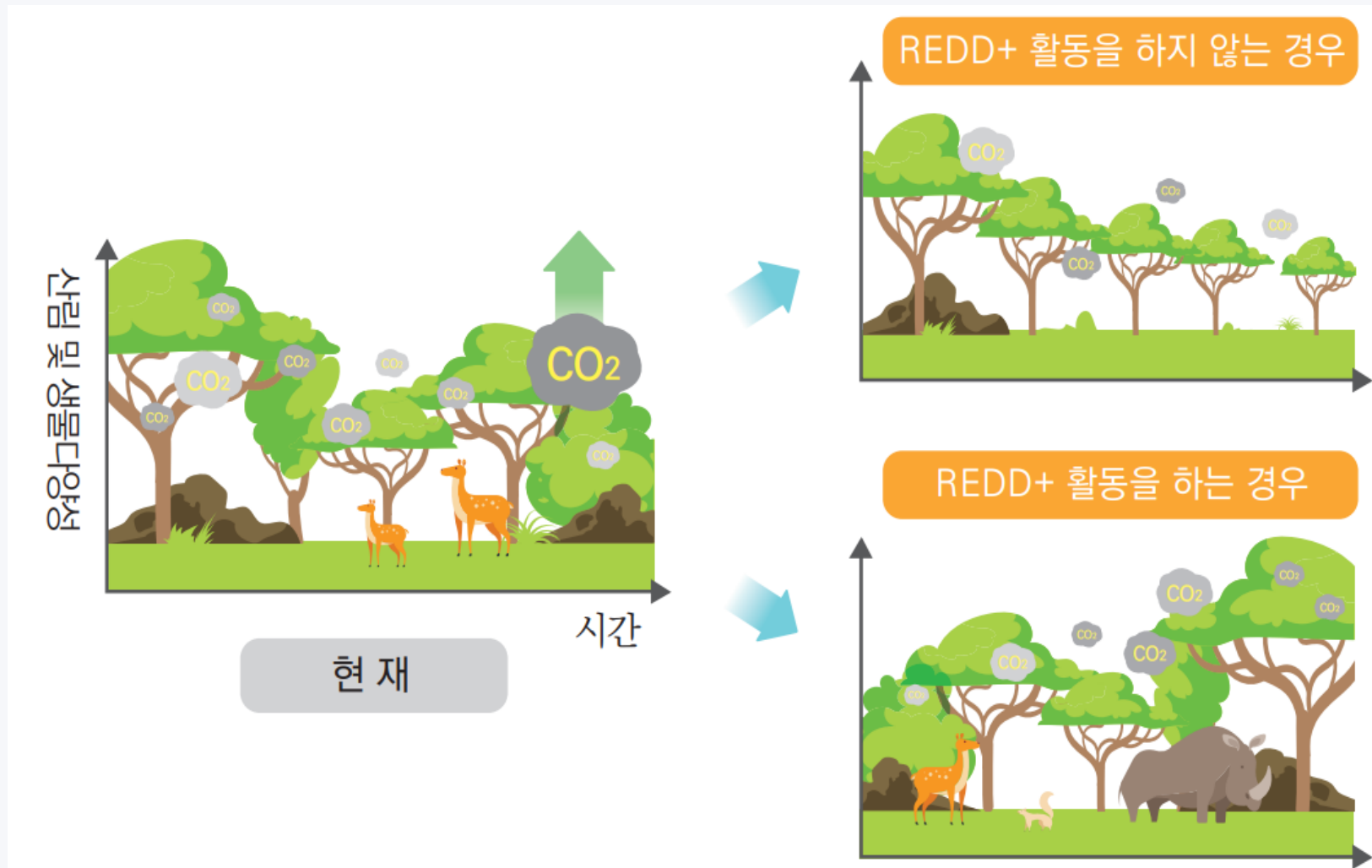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산업 부문에 이어 세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방지하고 산림을 복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가 **!시급!** 합니다.



REDD+ 사업 활동유형



출처 : 2023년 쉽게 설명하는 REDD+ 설명본(산림청, 2022)

1. 불법 벌채가 많이 일어나는 마을에 산림 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벌채 억제 활동
2.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전기스토브 보급으로 산림 훼손문제를 경감시키는 활동
3.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토록 경영 지원 활동
4. 지역주민들이 산림 벌채대신 다른 소득 낼 수 있는 역량 강화 (훈농임업, 훈목임업 등) 활동
5.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산림탄소축적 증진을 위한 활동

단순히 **나무심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산림파괴 막는 활동은 REDD+ 활동으로 인정

REDD+ 사업의 주목적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SDGs에 기여)

REDD+ 사업을 통한 자발적 시장 참여 현황

□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프로그램 개요

- VERRA는 VCS 운영 초기부터 AFOLU 부문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AFOLU가 전체 사업의 약 절반을 담당
- 프로그램 종류

구분	프로그램명
산림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RR (신규조림·재조림) :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IFM (산림경영개선) : Improved Forest Management
비산림	WRC (습지보전·복원) : Wetland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ALM (농지관리) :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 REDD+ : REDD에 ARR, IFM을 더한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는 탄소상쇄 사업

□ 프로그램 운영 현황 (‘21.9월 기준)

- AFOLU 부문은 VCUs 누적 발행량의 45%, 거래량의 40%를 차지
 - * VCUs 누적 발행량 : 총 770백만tCO₂ / AFOLU 348백만tCO₂
 - VCUs 누적 거래량 : 총 389백만tCO₂ / AFOLU 156백만tCO₂
- 세부 현황
 - 프로그램별 : REDD가 프로젝트의 38%, VCUs 발행량의 67%를 차지

구분	총계	REDD	ARR	IFM	WRC	ALM
프로젝트(건)	218	82	103	24	1	8
VCUs(백만tCO ₂)	348	234	27	9	34	44

- 지역별 : 중남미 지역이 프로젝트의 42%, VCUs 발행량의 43%를 차지

구분	총계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기타
프로젝트(건)	218	91	58	52	12	5
VCUs(백만tCO ₂)	348	149	114	77	5	3

REDD+는 VCUs 총 발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1.11 보도)

24. 4. 14. 오전 12:08

산림 보호·기후변화 대응부터 채권 발행까지...우리은행의 ESG 실천 - 더 나은 미래

전체뉴스>ESG

산림 보호·기후변화 대응부터 채권 발행까지...우리은행의 ESG 실천

김규리 기자

입력 2024.01.18.14:18

우리은행이 국내은행 중 최초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에 나서고 ESG채권 7억 달러를 발행하는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이 16일 캄보디아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홍주 캄보디아우리은행 법인장, 케오 오마리스(Keo Omaliss) 캄보디아 산림청장, 진선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우리은행

출처 : 조선미디어(2024.1.18 보도)

기업(기관)은 해외산림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목재)** 또는

다양한 **ESG 전략(REDD+)**을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산림을 활용한 **ESG 경영성과 창출 방안은?**


E(Easy) 쉽고,

S(Simple) 간단합니다.

G(Go green with forestry!) 산림을 활용하세요!

04 정책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참여 방안

그린워싱 방지 : Community Forests International 5대 전략

- 


1. 당사자성

탄소상쇄 프로젝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규제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직접 설계하도록 고려
- 

2 투명한 관리 및 실행절차

상쇄 매커니즘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갖출 것(Verra, Gold Standard 등 국제사회 수준의 상위기준을 활용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모니터링)
- 

3. 지속적인 사업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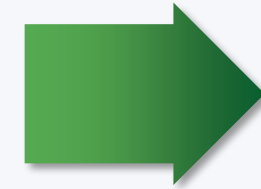
기후과학과 탄소상쇄는 역동적이고 방법론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므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개선하는 노력을 촉구
- 

4. 책임있는 목표 설정

단순 현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표를 넷제로를 넘어 탄소 절대량 감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는 목표로 설정
- 

5. 생물다양성 고려

생물다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경제에 10조달러의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소상쇄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연기반 솔루션 필요



기업
단독
대응
한계
존재



2022.10.3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2023.08.16
제정·공포

2024.02.17
시행

산림청

산림청 정책지원 방향 및 국제산림협력 네트워크 활용 기회

Q 민간을 위해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운영표준과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돕습니다.
- 기술 및 연구개발과 이용, 촉진을 지원합니다.
- 전문기관에 교육, 훈련을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신고하고 수리완료된 사업자들에게는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합니다.

산림청



산림청의 전세계 38개 양지협력 체결국가 활용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한-베트남 산림협력 사업단

✓ 사전환경조사

- ✓ 목적 : 해외산림투자 희망기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지원하여 투자위험 및 해외진출 초기 장벽 완화
- ✓ 예산 및 사업량 : 80.5백만원 / 3개 기업
- ✓ 지원범위 : 조사비용의 70%(기존 수혜기업은 60%)
- ✓ 지원자격 : 법인 등본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기업 중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기업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불필요

✓ 현장기술자문

- ✓ 목적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기업 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활동을 지원하여 사업 조기 정착 지원
- ✓ 예산 및 사업량 : 72백만원 / 3개 기업
- ✓ 지원범위 : 자문활동 비용의 80%
- ✓ 지원분야 : 조림, 묘목, 토양, 목재가공, 물류, 경제성, 인증 중 복수선택
- ✓ 지원자격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된 기업**

기업 모집(3월 초)

- 공고문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게시 및 접수 (ofis.kofpi.or.kr)

지원기업 선정 및 조사 실시(4월~8월)

-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선금 교부
- 사전환경조사, 현장기술자문 실시

조사 결과 확인 및 정산 검수(9월)

- 조사 결과 및 집행내역 검토
- 외부 회계법인과의 교차검증

결과 보완 및 정산 확정(10월)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확정
- 조사비용 지원금 잔금 교부



✓ 해외산림투자 관련 정보 제공

01 국제심포지엄 및 기업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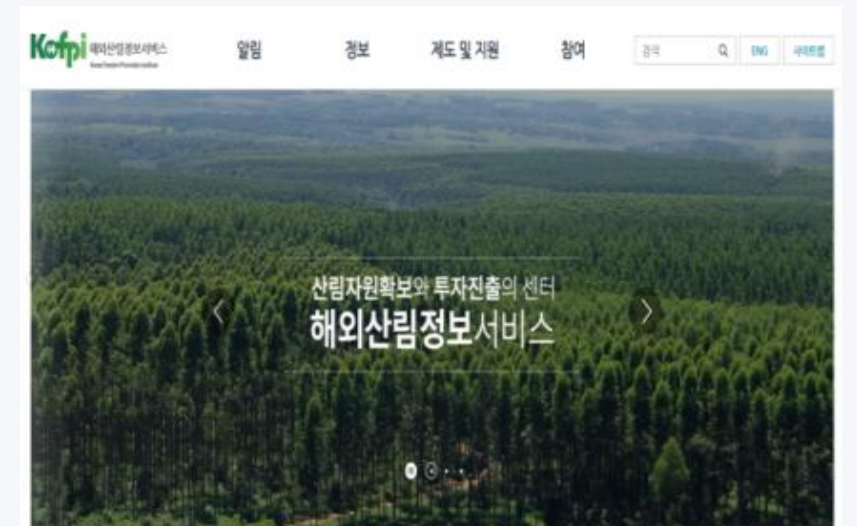
- ✓ 목적 : 해외산림투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산림정책 소개를 통한 투자활성화
- ✓ 개최시기 및 장소 : 5월 미정, 11월 서울
- ✓ 참석대상 : 해외산림투자부문 관계자 전원
- ✓ 주요내용
 -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 변동사항 및 현황 안내
 - 타기업 투자사례 공유, 산림투자 진출 확대방안
 - 정책지원 제도 발굴 관련 의견 수렴

02 열대조림사업 실무가이드

- ✓ 목적 : 기업의 열대국가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 및 목재수급률 제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 배포시기 : 11월
- ✓ 주요내용
 - 기 열대국가 진출기업의 해외산림자원 사례 분석 및 실패사례는 대안 마련
 - 사업 안정화 및 수익창출 전략 수록

03 해외산림정보서비스 (ofis.kofpi.or.kr)

- ✓ 목적 :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정보 제공
- ✓ 주요내용
 - 보조사업 공모 알림
 - 실무가이드, 조림수종, 임업기관 정보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용자 상담 및 신청접수 · 검토

- ✓ 목 적 :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시를 위해 시중은행 금리 이자 손실분(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업무를 지원
- ✓ 사 업 량 : 47억원
- ✓ 주요내용 : 용자신청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용자심의회 이전에 기업 제출서류에 대하여 외부 검토위원과 사전검토
- ✓ 유의사항 :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사전 담보 확인(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용자지원 사업지 현지점검

- ✓ 목 적 : 산림청 용자지원 현지점검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현장 확인 및 정책 반영을 위한 현장애로사항 접수
- ✓ 주요내용 : 용자신청사업 수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취합 및 정책제안 도출 (필요 시 외부전문위원 동행)
- ✓ 산림사업종합자금지침 상 용자사업지는 2년 내 점검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공고 용자 상담 및 신청서 접수(임진원)

- (2차 공고) '24.3.18. ~ '24.5.3.
- * 잔여지원액 : 4,060백만원

평가위원 사전심사(임진원)

- 전문가 섭외 및 신청서 사전심사 실시
- 사전심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

용자심의회 개최(산림청)

- 용자심의회를 통한 승인 결정

용자사업 추진현황 점검(임진원)

- 용자지원 사업지 현장 점검 (증빙서류 확인 및 의견 청취)



감사합니다.

Easy, **S**imple, **G**o green with forestry!

